의도의 놀라운 힘

| **바딤 젤란드** | **박인수**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의도, 뜻은 모든 성취의 배후에서 우리를 쉼없이 살아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동력원입니다. 의도는 모든 에너지와 지혜를 가져다줍니다(편집자 주).

생각과 욕망이 가능태 공간 속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조종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꿈에서는 이 움직임이 물질의 불활성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는다. 작은 생각이 얼핏 스쳐가기만 해도 그것이 즉시 우리를 다른 섹터로 옮겨다 놓는다. 현실화되어 있는 섹터에서는 물질의 무거운 불활성 때문에 일이 얼른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한다. 즉, 생각은 삶 속의 사건들의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 그래요?" 하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반문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아직 이 해괴한 트랜서핑 모델이 일으킨 기적 앞에서 완전히 멍해져 보지 않은 독자들 말이다. "난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리석었단 말이죠? 그럼요, 물론 이젠 나도 덕분에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라굽쇼."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 모순이 전혀 없다. 게다가 그것은 생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행동한다는 사실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람들은 자기 행동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에 익숙하다. 왜냐하면 행동은 현장에 드러나 있어서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생각의 결과는 그에 비하면 훨씬 덜 분명하다. 이것은 균형력의 작용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균형력의 작용이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예를 살펴봤었다. 어떤 것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얻게 된다. 잉여 포텐셜이 클수록 그의 현실은 그가 원하던 현실로부터 멀어진다. 그는 세상이 왜 그토록 이상하게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세상이란 것이 원래 그렇거나, 또 아니면 꿈이란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애쓴다.

트랜서핑 모델에 실제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를 통과해가는 에너지가 생각에 의해 변조되고, 이 에너지가 사람들을 그 생각에 어울리는 인생트랙으로 데려다 놓는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생각이 우리를 그에 어울리는 시나리오와 무대장치가 있는 섹터로 데려다 놓는다고 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또다른 한 편 생각은 현실에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파에 기대 누워서 원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도 다른 인생트랙으로 옮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질 차원의 실현은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말이다. 현실주의적인 독자들은 귀가 번쩍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맞아, 바로 그게 문제야. 행동을 해야 해! 생각이나, 어딘가로 옮겨가는 그런 따위의 것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 그리고 일단 외견상 이 말은 맞다.

하지만 단지 겉보기에만 맞다. 실제로 이 모순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심상화한답시고 아무리 애를 써도 종종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답에 다가가고 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명백한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쓸 때 생겨나는 잉여 포텐셜과 관계된다.

두 번째 이유는 가능태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될 때 개입되는 불활성이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아주 종종, 목표를 향해 충분히 끈기 있게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목표들이, 단지 현실화될 시간을 갖지 못한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목표를 향한 열정이 금방 식어버려서 역경 앞에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그렇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도 실제로 자신이 어떤 것을 '주문'했던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든 희망도 버리고 있을 때 뒤 게야 원했던 것을 얻게 되었던 기억

이 있을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한 가지 실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어내려고 덤비는 것이다. 한꺼번에 연관성 없는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해놓으면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는 허공 속으로 헛되이 흩어져버린다. 가능태 흐름은 당신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헤엄쳐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의 특정한 섹터로 주의를 돌려 모든 노력을 하나의 정해진 목표에 집중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논하겠다.

꿈속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해로운 요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잉여 포텐셜이 끼어들지 않고 불활성도 방해하지 않는다. 마음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상적 몸부림을 멈추고 쉬고 있다. 하지만 꿈에서도 모든 욕망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은 낱낱의 사소한 생각들이 다 꿈꾸는 사람을 해당 섹터로 데려다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본질적이다. 방해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실제 생각과는 거의 무관하다. 비밀은 이것이다. – 현실화를 가져오는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원하는 대상을 노리고 있는 당신이다.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원하는 대상에 관한 실제 생각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무엇이다. 생각은 무대 위에서 놀고 있지만 이 힘은 보이는 것의 배후에 있다. 하지만 그 힘은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당신은 이미 내가 '의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눈치 챘을 것이다. 마음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이름과 파일 속에서도 의도의 알맞은 정의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를 대략,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으로 정의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생각이 그 자체만으로는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생각은 파도 꼭대기의 한 방울 거품과도 같다.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실현되는 것이다.

팔을 들어 올리는 예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팔을 올리기를 소원해 보라. 당신의 생각 속에 욕망이 형성되었다. 곧, 당신은 팔을 올리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의식한다. 하지만 욕망이 팔을 들어 올려주는가? 아니다. 욕망 그 자체는 어떤 행동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욕망하는 생각이 자신의 일을 행할 때만 팔이 올려진다. 남은 것은 행동하겠다는 결정뿐이다. 팔을 올려주는 것은 행동하겠다는 결정인가? 아니다. 결정도 팔을 올려주지 않는다. 당신은 팔을 들어올리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팔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팔을 들어 올려주는가? 결정 다음에 오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의도가 정말 무엇인지를 마음이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에서다.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이라는 의도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단지 실제로 행동하는 힘을 소개해주는 선에서 그친다. 남겨진 유일한 것은 다음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 팔은 욕망이나 결정으로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로서 올려진다. '결정'이라는 표현은 단지 이해하기 쉬우라고 끌어들인 것일 뿐이다. 하지만 물론 당신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모종의 힘을 가지고 있음은 언어를 빌리지 않고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사실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팔과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옛날에는 걷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한다. 마찬가지로 자전거에 처음 올라탈 때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자

욕망은 '목표 그 자체'를 지향하지만 의도는 그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을 지향한다. 의도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꿈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은 욕망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확고한 의도로서 하는 것이다.

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나서도 그는 그것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의도란 매우 애매모호한 것이다. 그것은 얻기는 힘들지만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예컨대 마비된 사람은 의도의 힘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리를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이 욕망을 행동으로 옮길 능력은 없다. 최면상태에서, 혹은 기적적인 회복의 결과로, 마비된 사람이 걸은 사 들이 알려져 있다. 의도가 회복된 것이다.

그러니 욕망 그 자체는 당신을 어디에도 데려다주지 못한다. 예컨대 욕망이 클수록 균형력의 반작용만 더욱 커진다. 다음 사실을 주목하라. – 욕망은 '목표 그 자체'를 지향하지만 의도는 그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을 지향한다. 욕망은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소망의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을 실현한다. 의도는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실현한다. 의도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행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 꿈속에서 날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아무 데도 가지 못할 것이다. 날기 위해서는 의도를 사용해서 그저 자신을 공중에다 띄워야 한다. 꿈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은 욕망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확고한 의도로서 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욕망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욕망의 무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다. 뭔가를 간청하는 것은 어떤가?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수호천사나 신이나 높은 힘에게

무엇을 간청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우주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냉철하다. 당신의 불평과 비탄과 하소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감사는 좋다. 왜냐하면 감사는 본질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가깝기 때문이다. 진정한 감사, 그것은 창조적 에너지의 방사광이다. 간청의 잉여 포텐셜은 그 반대다. 그것은 지체(delay)다. 그것은 에너지를 한 곳에만 모은다. 불평과 간청과 요구는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펜듈럼의 작품이다. "… 을 주세요." "나는 … 을 원합니다" 하는 등의 생각들은 자동적으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요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생각으로서 그것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려고 애쓰고 있다.

높은 힘에게 무엇을 간청하는 것은 말짱 헛일이다. 그것은 가게에 가서 점원에게 물건을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차라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물론 적당한 선에서 – 요청할 수는 있다. 그 밖의 세상일은 객관적인 법칙에 근거하고 있지,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씨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가 태양에게 다른 궤도를 돌도록 해달라고 조른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나 어떤 것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간청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짓이다.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짓은, 선택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당신은 실제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있다. 당신이 방사하는 에너지의 매개변수가 당신의 선택과 맞아떨어지고, 동시에 어떤 법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선택은 간청이 아니다. 그것은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하겠다는 당신의 결정이다.

의도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포텐셜 에너지가 행동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욕망과 행동은 의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행동하라.
문제가 어렵다고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있고,
동시에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것이다.

하나가 된다. 행동 속의 의도는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잉여 포텐셜을 자연스럽게 해소시켜준다. 이것은 균형력의 개입 없이 일어난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행동하라. 문제가 어렵다고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있고, 동시에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것이다. 행동할 때, 당신은 의도의 에너지를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눈은 겁내고 있지만 손은 일하고 있다." 의도를 실천할 때, 가능태 흐름에 몸을 맡기라. 그러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기대, 근심, 지나친 고민과 욕망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을 뿐이다. 행동 속의 의도는 포텐셜 에너지를 소비해줄 뿐만 아니라 기운을 불어넣어준다. 공부의 예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시험 직전에 주입식의 벼락공부를 하는 것은 노력은 많이 들어도 효과가 없다. 하지만 반대로 적극적인 태도로 공부하면, 다시 말해서 진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면 그것은 기운을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감과 만족을 가져다준다.

그러니까 의도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현실화시키는 구동력이다. 하지만 의문이 하나 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왜 또 현실화되는가? 그것도 우리 의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가? 현실의 삶에서도 꿈속과 마찬가지다. –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싫어함과 미움의 시나리오를 갖춘 가능태가 끊임없이 우리를 뒤쫓고 있다. 어떤 것을 원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갖고자 의도하지도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

만 발버둥치며 원치 않는 것은 여전히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욕망의 방향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이 문제의 열쇠는 더욱 비밀스럽고 강력한 힘 속에 숨겨져 있다. 그것의 이름은 외부의도다.(끝)

- 이 글은 '리얼리티 트랜서핑(2)'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바딤 젤란드(Vadim Zeland)** | 舊 소련의 양자물리학자였고, 이후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기도 했다. 다중우주 이론을 기반으로 현실변환 기법을 설명한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로 단숨에 러시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본 시리즈의 번역 출간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명세를 원하지 않는 탓에 저자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책에 소개된 개념들이 신비주의 교의들과도 통하는 바가 있어 '현대의 신비가'로 여겨지기도 한다.

역자 | **박인수** | 서울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전공한 후 러시아로 건 가 국제학교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쳤다. 대학 년 시절 임사체험을 하면서 의식의 빛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마음공부에 입문했다. 마인드컨트롤을 시작으로 20년간 TM–싯디코스, 은비학, 기공, 참선, 아봐타코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거치면서 명상학습법 개발과 영적 치유에 열정을 쏟아왔으며, 앞으로 트랜서핑 실천기법을 연구하고 전하려는 의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잉글리시 마인드 트레이닝》, 《한국어 꺼라 영어가 켜진다》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치유–아름다운 모험》, 《오라소마 프랙티스북》 등이 있다. 또한 미내사클럽 '지금여기' 번역위원이기도 하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리얼리티 트랜서핑(2)
성공의 물결로 갈아타는 선택의 비밀

바딤 젤란드 저 | 박인수 역 | 정신세계사 刊 | 11,000원

리얼리티 트랜서핑』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성공의 물결로 갈아타는 선택의 비밀'이다. 이 책은 인생의 행복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으로, 1권에서 트랜스 서핑의 이론적 배경과 에너지의 부조화를 없애는 법을 알려주었다면, 2권에서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매사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트랜서핑은 현실을 제어하여 원하는 것을 실제로 얻게 하는 방법으로써,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제공한다. 이는 특별한 비법을 사용하여 억지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근본적인 문제에 당당히 마주함으로써 성공에 이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제1편에서 설명한 트랜서핑의 이론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 것인지 제시한다. 이는 마음과 영혼이 의도하는 것을 서로 일치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꿈속에서도 깨어 있기, 안락지대 넓히기,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고정관념 깨기, 목표 되살리기' 등 구체적인 방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트랜서핑 타로카드

바딤 젤란드 지음 | 박인수 옮김 | 타로카드 덱(78장)과 해설서(196) 포함 | 정신세계사 | 값 30,000원

러시아 물리학자가 창안한 현실 창조의 원리와 '트랜서핑'의 기법을 일상 속에서 실현하도록 돕는 마법의 도구 – 《트랜서핑 타로카드》 국내판 출시! 아침마다 또는 골칫거리가 생길 때마다 왼손으로 카드를 한 장씩 뽑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의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해답과 가르침을 얻게 될 것이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원리를 일상 속에서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고안된 리얼리티 트랜서핑 타로 카드와 해설서. 78장의 카드와 해설서에는 아름다운 상징적 이미지 속에 트랜서핑의 핵심원리 78가지에 대한 가르침과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 사용법 |

1.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날의 사건에서 요구될 공부를 날마다 한 가지씩 해나간다.
2. 문제에 부딪혔을 때 카드를 펼쳐놓고 왼손으로 3장의 카드를 고르면 거기서 적절한 해결책과 공부거리를 발견할 수 있다.

※ 구입문의 : 02-747-2261~2